

## 0:4 ... 민심, 무능한 새정치에 회초리

천정배 광주 서구를 당선... 호남정치 개혁·야권 재편 주목  
새누리, 3곳 완승 '성완중 리스트' 충격 딛고 정국 주도권

### 4·29 재보선 ▶ 관련기사 3·4면

광주 서구 을 등 전국 네 곳에서 치러진 4·29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전 패했다.

새누리당은 인천서·강화읍과 경기 성남, 서울 관악 을 등 세 곳에서 승리, '성완중 리스트' 파문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국정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치러진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52.4%의 지지율을 얻어 29.8%의 득표에 그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수차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으나 돌아선 광주 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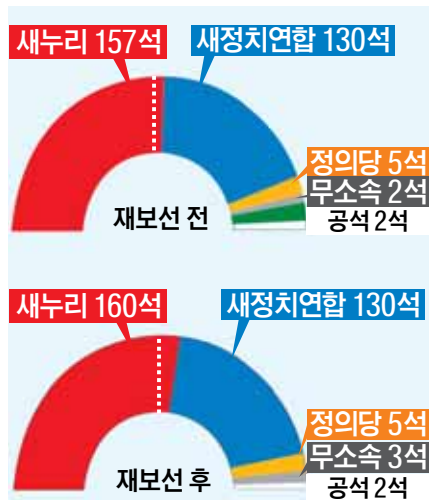
광주 서구 을은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심장이라 불리는 점에서 패배의 여진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서구 을 보궐선거 구도는 '천정배 대 조영택' 후보 대결을 넘어 '광주민심 대 새정치연합', 혹은 '광주민심 대 문재인' 양상도 보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정치연합의 지지 기반 분열과 함께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

### ■ 광주 서구 을 보선 득표 현황

정 승 (새누리)	11.07% (5,550표)
조영택 (새정치)	29.80% (14,939표)
강은미 (정의당)	6.75% (3,384표)
천정배 (무소속)	52.37% (26,256표)

\* 후보는 기호 순



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텃밭에서 패배한 것은 그동안 정치개혁과 올바른 견제를 바라는 민심을 뒤로 한 채 무기력증과 계파갈등에만 몰두해온 것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호남정치 복원을 갈망한 결과로 분석된다. 천 후보의 당선에 따라 당장 야권구도 개편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문재인 대표 등 현 지도부에 대한 책

임제기 등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또 천 후보의 당선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천 후보의 당선은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강력한 변화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년 동안 야당의 승리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호남'으로 불리었던 서울 관악 을 패배도 새정치연합에게 뼈 아프다. 정



돌아온 천정배

4·29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동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이 확정되자 두 손을 번쩍 들어 환호하고 있다.

임제기 등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또 천 후보의 당선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천 후보의 당선은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강력한 변화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년 동안 야당의 승리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호남'으로 불리었던 서울 관악 을 패배도 새정치연합에게 뼈 아프다. 정

동영 후보의 출마로 인한 야권 분열이라는 결정적 요인이 있지만 새정치연합에 대한 전국적인 호남 민심 이반 현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묻지마 지지'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히고 있다.

한편, 4·29 보궐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2017년 대선 직전 열리는 총선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올 10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면 12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되고 여야는 내년 2월께 공천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금호산업 수의계약 전환기로 박삼구 회장이 직접 매입할 듯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채권단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금호산업 채권단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지난 28일 본업할 유찰과 관련, 매각 방식을 공개입찰에서 박 회장과 의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4면〉

2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5월7일 열리는 채권단 전체회의에서 박 회장과 개별 협상을 통해 금호산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박 회장을 상대로 직접 매각에 나선 것이다.

채권단은 입찰과정에서 전략적투자자(STI)들의 소극적 반응을 확인한 데다, 재무적투자자(FI)를 마저 입찰을 포기하자 재입찰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입찰에서 호반건설이 제시한 6007억원이 채권단의 예상 금액보다 낮아 받아들이기 힘들고, 재입찰을 할 경우 시간이 또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채권단은 전체회의에서 박 회장과 의 수의계약을 결정한 뒤 기업가치 평가기관의 결론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얹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을 박 회장의 품에 다시 안길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박 회장으로선 자금 마련과 관련, 시간을 더 벌 수 있는데다 매각 전반에 대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됐다.

한편, 금호산업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8000억~1조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해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정치 참패 ... 텃밭도 수도권도 잃었다

서울 관악을 오신환

경기 성남 중원 신상진

인천 서·강화읍 안상수 당선

4·29 재·보궐선거의 4개 국회의원 선거구 개표 결과 새누리당 후보가 3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1곳에서 당선됐다.

선거 중반, 이른바 '성완중 악재'로 한때

전패 위기감에 빠졌던 새누리당은 '압승'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통적 텃밭'인 광주와 서울 관악을에서도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전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관악을에서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3.89%의 득표율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34.20%)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20.15%)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55.9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는 35.62%,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8.46%의 득표율에 그쳤다.

인천 서·강화읍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54.15%를 득표해 새정치연합



오신환 당선인



신상진 당선인



안상수 당선인

집계됐다. 선거구별로는 광주 서구 을이 41.1%로 가장 높았고 성남 중원 이 31.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악을 과 인천 서·강화읍 은 각각 36.9%, 36.6%로 집계됐다.

한편, 곡성군의 회 가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재호 후보가 29.2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역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The essence of luxury.  
The all new Mercedes-Maybach S-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Maybach S 500 4,663cc, 2,335kg, 자동9단, 복합연비 7.9km/ℓ (도시연비: 6.6km/ℓ, 고속도로연비: 10.4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28g/km \*Mercedes-Maybach S 600 5,980cc, 2,445kg, 자동7단, 복합연비 6.8km/ℓ (도시연비: 5.7km/ℓ, 고속도로연비: 9.0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26g/km  
표준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